'불자감동' 화두 삼아요

방송작가 교계 50여명 활동

튀는 아이디어·신심 '무장'
신세대 대거 등장 '돌풍'

한편의 프로그램이 불자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방송작가들이다. 불교방송과 불교TV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송작가들은 모두 50여명. 이들은 산뜻한 아이디어와 깊이있는 불교 교리 상식으로 포교 시사 오락 전반에 걸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작가계에도 최근 세대교체 바람이 불어 20대 신진 작가들이 대거 등장해 방송가에 신세대 돌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베테랑 작가들의 끌어주기와 신진 작가들의 새상품 개발(?)의 손발이 척척 들어맞는 작가실 분위기는 화기애애하다.

"불교교리를 좀더 쉽게 생활 속의 불법으로 전달하는게 어렵다"는 신진 작가의 대표주자 박미정씨(불교방송)는 "방송의 특성상 정확성, 시기성, 정보성, 창의성 등과 독창적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데다가 프로그램의 특징살리기와 시청자 청취자 마음붙들기가 우리 손에 달려있어 중압감도 느낀다"며 강한 책임감을 드러내 보였다. 때문에 끊임없이 책 신문 컴퓨터등 주위에 널려있는 정보습기와 전문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

불교방송에는 대표적 포교 프로그램인 '차한잔의 선율' 이윤수씨, '꺼지지 않는 등불' 방귀희씨, '무명을 밝히고' 윤금선씨, '봄비니 동산' 박연진씨, '퀴즈대장경' 박미정씨 등과 '옛가락 우리노래'를 맡고 있는 청일점 박홍렬씨 등 20여명의 작가들이 불자들과 만나고 있다.

불교방송 개국 때부터 활동해온 이윤수씨는 후배작가들에게 "불교계 방송을 이끌어 가는 작가는 글을 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불심이 있어야 하고 성실함과 신용도 갖춰야 합니다"라며 관심어린 충고 한마디를 잊지 않는다.

불교TV에는 간판 프로그램 '날마다 좋은 날'이 채제분 이창희씨등 6명의 작가를 보유(?)하고 있고, '자비의 친수천안'에 손승희 정영선씨, '퀴즈특급 이뭣고'에 이선희 박지영씨 등 총 30여명의 작가들이 방송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들 작가들은 부처님의 올바른 법을 전파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만의 맨트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경전 뒤적이기에 여념이 없다. 자신이 글을 쓴 의도와는 상관없이 청취자 시청자들이 받아들여 오해를 한다거나 의견전달이 제대로 안됐을 때가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는 작가들.

'불심을 전하는 방송' '불법과 함께 하는 방송'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들 방송작가들을 바라보는 방송 관계자들은 방송국의 작가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이들 스스로가 정확한 교학체계와 불교적 심성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강지연 기자

◇방귀희

◇이윤수

◇박홍렬

◇윤금선

◇박연진

◇박미정

◇이선희(오른쪽) 박지영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75)

♦ Whosoever after cutting all bonds does not tremble has shaken off all ties and is liberated him, I call a Brahmana.

모든 속박을 끊고 겁내지 않으며, 집착을 초월해 붙잡혀 있지 않은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 Whosoever being innocent endures reproach blows and bonds the man who is strong in his endurance and has for his army this strength him, I call a Brahmana.

죄 없이 욕을 먹고 구타나 구속을 참고 견디며, 인내력이 있고 마음이 용맹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 The man who is free from anger endowed with (holy) works, virtuous, without desire subdued and wearing the last body him, I call a Brahmana.

성내지 않고 도덕을 지키며, 계율에 따라 욕심을 부리지 않고, 몸을 안정시켜 '최후의 몸'에 이른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 The man who like water on a lotus leaf or a mustard seed on the point of a needle does not cling to sensual pleasures him, I call a Brahmana.

연꽃잎의 이슬처럼, 송곳 끝의 겨자씨처럼, 온갖 욕정에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 The man who has a profound understanding who is wise who knows the true way and the wrong way who has attained the highest good him, I call a Brahmana.

지혜 깊고 총명하며 온갖 길에 통달해 최고의 목적에 도달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 The man who knows in this world the destruction of his pain, who has laid aside him burden and is liberated him, I call a Brahmana.

현세에서 이미 자기의 고뇌가 소멸된 것을 알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걸림이 없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tremble 몹시 걱정하다, 근심하다
*liberated 해방된, 자유로운
*innocent 결백한, 죄 없는

주부신행담

부처님의 미소 ①

불법으로 '자기변화' 결심
우선 3천배를 하기로 했다
108배 넘자 다리가 후들…

불법과 인연을 맺은 지도 제법 오랜 세월이 흘렀다.

'나이가 벼슬'이라는 말처럼 한 가지 일에 바친 시간이 십 수 년이면 일가를 이루진 못해도 엇비슷하게 흉내라도 낼 법한데 도무지 오리무중이다. 그날이 그날 같은 일상에 허우적거리며 아귀다툼을 더할 뿐이니 중생치고도 한심한 중생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초하루, 보름마다 부처님전에 나아가긴 했지만 진지한 불자로서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혼자 놀기 심심해 절 문을 두드리는 식이었으니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울 밖에.

무엇이 불법이 길래, 이 어리석고 불쌍한 중생의 귀에는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까? 딴에는 비장한 각오로 큰 의심덩어리 하나 풀어보지만 끊이지 않는 생활의 어려움은 마음의 빗장만을 단단히 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친구 네명과 이런저런 얘기 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기 변화를 이끌어 내자'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의기투합하고 보니 묵은 체증 같은 답답함이 조금은 가신 기분이었다.

일단, 각자의 근기에 맞는 기도에 앞서 3천배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전에도 3천배를 해 본 경험이 있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기억이 아직도 가시지 않아 이번엔 3일에 나누어서 하기로 했다. 하루 1천배씩.

불영사에 도착하니 9시가 조금 넘었다. 행색이 제법 그럴듯 했는지 스님께서는 대뜸 3천배를 하러 온 줄 아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다. 그래, 생각이라도 바르게 하면 이렇게 칭찬이 돌아오는구나.

과장된 신심일수록 모양에 집착하는 법, 비장한 결의를 담아 오체를 법당 마루로 던진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108배를 넘자마자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한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하는 단순반복일 뿐인데 무겁기가 천 근이다. 그러나 어쩌랴,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을. 틈틈히 물이나 과일을 먹는데도 채 5백배도 이르기 전에 탈진 상태가 된다. 가끔 불어오는 부처님 손길 같은 부드러운 바람도 땀방울을 식히기엔 역부족이다.

5백배를 넘어서자 뚝 뚝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만 할까? 하는 순간 어느새 무릎이 내려가 있다. 부처님 얼굴은 초점 흐린 사진마냥 아른거리고 온 신경은 아픈 허리, 다리, 무릎으로 총횡무진.

7백~8백배가 넘어서자 오기가 발동한다. 숫제 이 몸뚱이가 원수같다.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9백배를 넘어서자 거친 숨 사이로 희열 비슷한 뿌듯함이 끼어든다. 그러나 힘들긴 마찬가지였다. 소풍 날짜 세는 초등학생마냥 일배 일배가 힘겹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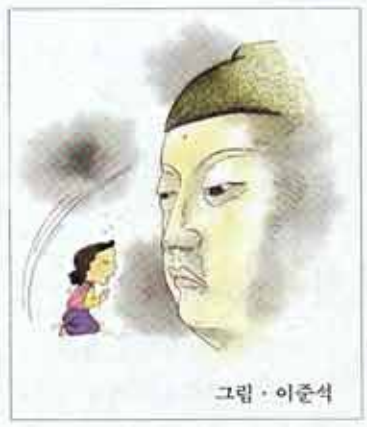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천배를 마치니 오후 1시가 조금 넘었다. 몸은 과감치가 되었고 발가락과 무릎에 물집이 잡혔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다른 사람은 모두 멀쩡하다. 내일은 포기할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얼굴은 전혀 포기할 기색이 아니다. "독한 인간들."

그래도 천배를 마친 뿌듯함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다. 굳이 표현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소한 표현에 매달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지.

'기갈이 감식'이라더니 스님께서 차려 주신 공양이 말 그대로 꿀맛이다. 이 또한 3천배의 공덕이려니 생각하니 쇠덩이처럼 단단해진 장딴지가 제법 대견스럽다.

다음 날 아침, 이불을 박차기가 쉽지 않았지만 천장에 친구들의 얼굴이 그려진다.

다시 만난 얼굴들이 푸석푸석하다. 얼굴의 부기 때문인지 눈은 더욱 퀭해 뵌다. 부처님 은덕으로 살이 찌 좋다고 한바탕 웃는 것으로 구호를 대신하고 출발, 부처님 앞으로.

배석자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곡2리〉

큰기술 PCS 016 세상-

작은 선택만으로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

PCS 016 『포교기금 부다피아』

PCS는 · 통신전문가 「한국통신프리텔」
가입신청은 ·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사용요금의 5%는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란?

PCS 016 가입시,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신청만 하시면 최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불국토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실 수 있습니다.
고객에겐 조금의 부담도 없이, 납부하신 통화요금중 5%가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전문단체를 통하여 통일 포교와 불우이웃 돕기로 쓰입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가 꿈꾸는 세상, 모두가 하나되는 부처님나라."

■ 주관 :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 후원 : 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돕기불교운동본부, 소쩍새마을, (사)감로심장회

품질 통화품질이 다르다
전파는 방해없이 바로바로 전달되어야 제맛입니다. 국내최초로 PCS 업체중 시스템기술센터의 품질검증을 거치고, CDMA네트워크의 최적화를 이룩한 PCS 016·33%기 한국통신의 교환기로 직접 연결되기에 통화품질이 타 이동전화 회사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때문에 데이터 등의 훼손을 방지함은 물론 통화중 끊김현상, 혼선잡음 등이 거의 없습니다.

2배 채널용량이 다르다
한국통신프리텔은 현재에 급급하여 아구잡이로 기지국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온 국민 누구라도 넉넉하게 이동전화를 쓸 수 있도록 기지국 하나를 설치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미래를 생각한 기지국 하나하나 마다 수용 채널수가 타 이동전화회사의 2배이기에, 통화량이 폭주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넉넉하게 PCS016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전국통화가 보인다
이땅의 곳곳을 누비며 축적된 등고선 자료, 전국의 도로지도, 인구통계, 건물자료 등 한국지형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는 PCS 016 ·전국 어디서나 제맛한 감도로 통합니다.

97년 10월 통화가능지역(전국 인구대비 90%)

수도권	서울 전지역 인천 고양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하남 화성 가평 강화 광주 양평 여주 연천 포천 양주 안성 양평 여주 연천 포천 양주 동두천 대부도
강원권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원주 춘천 태백 인제 도계 횡성 영월 원주 정선 평창 홍천 춘천 횡성
충청권	대전 계룡 청주 충주 단양 보은 괴산 음성 증평 진천 공주 논산 부여 서천 아산 예산 천안 금산 당진 금산 당진 예산 천안 금산 당진 보은 영동 옥천 서천 보령 서천 보령 서천 보령 대전 충청 지역 전역
경남권	경주 군산 김제 남원 익산 전주 정읍 옥구 고창 무주 부안 순창 완주 임실 장수 김제 남원 장수 임실 완주 순창 무주 부안 고창 정읍 옥구 군산 익산 전주